

포화속에 묻힌 이름들

그들은 왜 총을 들었는가

깃발은 눈앞지만

심장은 낮게 울었고

아이의 울음은
대포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총성이 멈춘 틈판위에

햇살은 다시 피고
꽃은 말없이 피어난다.

진정한 평화는

디아상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물 이유를 함께

지켜내는 것이다.

In den Schlachten begrub man Namen
Warum trugen sie das Gewehr?
Die Fahnen wehten hoch
doch die Herzen schlugen leise

Das Weinen eines Kindes
hinterließ tiefere Wunden als Kanonen.

Doch
auf dem Feld, wo das Feuer schwieg,
scheint wieder das Sonnenlicht
und stumm blüht eine Blume

Naher Frieden
ist nicht nur das Ende des Kampfes.
Sondern das gemeinsame Bewahren
eines Grundes, nie wieder zu kämpfen.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작품 설명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개개인의 내면과 삶에 대한 이야기다. 역사 속에서 개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개인의 선택과 운명이 어떻게 얽히는지 철학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잇드레이, 나타샤, 피에르 등 주요 인물들의 성장과 변화, 인간의 본성과 삶의 진실을 보여주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전쟁과 평화」는 인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는 작품이며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 자유와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고전이다.